

#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총력

### 농어촌공 전북본부, 공사관리 저수지 대상 철새 도래지 흥덕·옥구저수지 등 예찰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지난 11월 27일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관리 저수지에 대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



2일 이강환 전북본부장이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10개 지사를 대상으로 'AI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새들이 도래해 동자를 들고 겨울을 나는 흥덕, 청호, 옥구저수지 등 전북도내 주요 14개 저수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조류 종(種) 및 개체수를 확인하는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내 공사 관리 저수지 내 일방인 출입을 자제하도록 주요 길목에 출입금지 띠를 두르고, 출입통제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외부인 및 낚시객의 출입을 통제해 오고 있다. 해당 저수지를 관리하는 지사에 1,400 만원을 지원해 저수지 입구 및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나 주차장에 생석회 및 소독약품 등을 도포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사 주요 저수지의 방역사항을 자체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철저한 차단방역 강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수지 예찰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부인들은 AI 예방을 위한 저수지 접근 제한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강환 본부장은 각 지사와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사항을 긴급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 강화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윤상 기자

## '재해에 강한' 농진청 개발 나물용 콩 '아람' 콩나물 가공업체로부터 '우수'

### 내년 정부보급종 생산, 2022년 농가에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개발한 나물용 콩 '아람'이 2018년부터 3년간 11개 콩나물 가공업체의 품질 검증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성이 입증됐다.

☞대한두채협회 회원사(10개)에서 실시한 품질 평가 결과, '아람'의 콩나물 수율은 761%로 '풍산나물콩' 대비 9%p 높았다. 발아특성, 콩나물 길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도 9점 만점에서 7.4점을 받아 '풍산나물콩' (5.9점)보다 높았다.

☞품질무원에서 진행한 품질 평가에서는 '아람'의 콩나물 수율이 554%로 나타나 '풍산나물콩' 대비 32%p 높았다. 또한 식미 검증 결과, '아람'이 조리 뒤 향미(향과 맛)가 더 고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람'은 콩나물 길이가 짧으나 머리가 노랗고 두께가 얇아 조리 전 '전반적 외관' 기호도가 3% 높게 나타났으며, 조리 후에는 이취(이상한 냄새)가 적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 향미(향과 맛) 기호도가 6% 높게 평가됐다.

2016년 개발된 '아람'은 꼬투리가 높게 달리고 쉽게 쓰러지지 않아 기계 수확에 적합한 품종이다. 기존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풍산나물콩'보다 생산성이 높고 재해저

항성을 갖춘 우수한 나물용 품이다.

농진청은 '아람'의 보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마다 생육 평가 및 기계 수확 연시회를 열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콩나물 가공업체에 '아람' 종자를 제공해 콩나물 품질 평가도 진행해 왔다.

농진청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나물용 주산지 제주에서 2017년부터 4년간 생육특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아람'이 2019년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2020년의 태풍·긴 장마에도 잘 쓰러지지 않았으며 평균 수량이 '풍산나물콩'보다 23% 많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불비염병과 검은뿌리썩음병에 강한 것으로 평가돼 재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람'은 정부보급체계를 통해 2022년 정부보급종 나물용 종자로 공급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발육개발과 정찬식 과장은 "우수한 나물용 콩 '아람'의 널리 보급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국산 콩나물 공급을 위한 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라식·라섹 시력교정수술 무료지원' 참가자 모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사)담장너머와 함께 '라식·라섹 시력교정수술 무료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던 도내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시력교정수술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빛과 희망을 선물하고 한국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북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동안 시력교정수술이 어려웠던 자 ▲특별한 사연 등으로 시력교정수술이 필요한 자 ▲한국에서 생활하며 정착 의지가 강하고 모범이 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시력교정수술은 사전검사, 수술, 사후관리 등 수술관련 전체비용이 무료로 제공되며, 1차 서류심사 후 2차 의뢰기관 심사를 통해 최종대상자를 선발하고 개인별로 적합한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12월 18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063)250-7154로 하면 된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높은 가격으로 그동안 시력교정수술에 어려움이 많았던 결혼이주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속 혁신성과 공유하다

aT, 경영혁신 BP 경진 대상 - '안전한 공공급식' 최우수상 -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등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11월 30일 2020년도 경영혁신 BP(Best Practice)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창의적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향상된 우수 혁신성과들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특히 각 사업별로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정책 성공을 위한 대응노력, 국민제감형 성과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직원이 참여해 즐거운 퀴즈풀이와 관련 사업 동영상 시청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총 95개 사례 중 본선에 진출한 8건의 혁신사례들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국민평가와 온라인 PT발표 등 내·외부 전문가 평가절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사례를 선정했다.

최고의 혁신사례 대상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공급식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디지털 뉴딜시대 정답, 농식품 빅데이터플랫폼 ▲공공 먹거리지원체계 구축으로 국민영양안정망 확충 ▲포스트 코로나, 미국 MZ세대 흡수·흡족은 K-Sool·K-Food! 가 각각 선정됐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올인원 패키지 등 4건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aT는 한 해 동안 각 사업과 국내·외 현장에서 수행한 혁신활동의 우수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우수부서를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2009년부터 BP경진대회를 12년째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고 노력해왔던 다수의 혁신사례와 성과들이 발굴돼 한층 더 돋보였던 자리였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일 전북혁신도시 본사 새울림홀에서 '202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성완 사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국민 안심사회 실현 다짐

### 전기안전대상 성료... 유공자 정부 훈·포장 14점 수여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 온라인 생중계와 병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2일 전북혁신도시 본사 새울림홀에서 '202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199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전기안전 분야 최대 행사다. 전기안전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의지를 모으는 자리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 실황이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참석자 이외에 일반 국민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지원실장과 임해중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김정철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사자, 유공자와 가족 등 90여 명이 함께했다.

올해 전기안전대상에서는 전기안전 산업육성과 안전관리에 힘쓴 개인과 단체 유공자들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4점, 산업부 장관표창 35점과 상장 4점 등 총 53점이 수여됐다.

## 준조합원 비대면 가입서비스 오픈

농협 상호금융 'NH로뱅크' 서  
가입시 최대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 받을 수 있어



부하면 되고 탈퇴 시 해당 계좌로 환급된다.

박성일 본부장은 "연택트 시대에 발맞추고 고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가능 점포, 다양한 외부 제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로뱅크를 금융·정보·유통 융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이나 로뱅크 이벤트 페이지, 스마트상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가족친화인증' 신규 획득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가 지난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다양한 일·가정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 심사는 지난 7월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9월 현장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이음용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사는 '유연근무제'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각각 '문화의 날', '가정의 날'을 운영해 자녀가 있는 삶을 장려했다. 아울러 자녀가 있는 직원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강팔문 사장은 "앞으로도 많은 직원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염병 의심되면 '1339'로

최고 혁신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에스지이엔씨(주) 이순형 회장은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과 ESS 설비 안정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에 앞장선 공적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받은 김진선 대표이사과 윤보선 대표이사는 각각 국내 계속장비 선진화를 통한 안전관리기술 발전, 전력설비 안전 시공과 산업 기능인력 양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성완 사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으며 기존 제도와 업무방식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수준에 걸맞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전기안전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이 내년 4월 본격 시행되면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노후 공동주택 전기점검 제도화 등 국가 안전관리 체계가 새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도농기원, 새만금 간척지 '나리' 생산구근 장기 저장기술 개발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소득을 통한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화훼류 경관농업을 연구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인공방조제)를 찾는 관광객이 연 600만명 이상(2017년, 620만명)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새만금 간척지의 최장 인공방조제와 생태적 환경을 연계 활용한 경관농업단지를 조성 한다며, 체류형 관광객을 꾸준히 유치해 농업을 관광에 접목시키는 6차 산업으로 새만금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2018~2020년 새만금 적용 가능 경관작물로 구근류 '나리' 등 8종, 숙근류 '천일홍' 등 5종, 화목류 '무궁화' 등 4종을 선별했으며, 특히 구근 화훼류 '나리'를 새만금 간척지 토양 현장에(1.5ha) 적용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간척지에서 생산된 구근의 연중 보급을 위한 장기저장 기술도 개발했는데, 구근의 장기저장 전 처리온도 구멍(8℃, 4주 + 4℃, 6주), 저장 중 환기횟수 구멍(1회/주 이상), 저장 중 O2/CO2 비율 선별(3:8%) 등 개발된 저장기술을 활용해 연중 보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 건협 '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가 꾸준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2일 선정됐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우리 협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인정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속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